

# 2024.08.16.(금) 증권사리포트

에스에프에이

수익성 개선세 유지는 긍정적이나, 아쉬운 수주 실적

[출처] BNK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

2Q24 Review: 별도기준 OPM 10%대 유지, 반면 신규 수주는 급감

연결기준 2Q24 매출액은 5,562억원(-3%QoQ, 33%YoY), 영업이익은 545억원(flat QoQ, 155%YoY)을 기록, 컨센서스 대비 각각 2%, 8% 하회했다. 자회사 씨아이에스의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SFA반도체 실적이 미달했기 때문이다. 별도기준 매출액은 2,716억원(-16%QoQ, 14%YoY), 영업이익은 287억원(-12%QoQ, 70%YoY)을 기록, 우리 예상치를 각각 12%, 7% 하회했다. 긍정적인 점은 OPM 10.6%를 기록, 전분기에 이어 10%대를 유지하여

수익성이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신규 수주(별도)는 1,045억원으로 예상보다 절반 이하에 그쳤는데, EV 수요 둔화로 이차전지 발주가 지연된 영향이다. 긍정적인 점은 반도체 수주가 885억원으로 분기 최고를 기록했다.

3Q24 실적은 QoQ 감소, 연기된 연말 수주 달성 여부가 관건

별도기준 3Q24 실적은 매출액 2,580억원(-5%QoQ), OPM 9%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연결기준으로도 SFA반도체 적자전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440억원(-19%QoQ)으로 감소 예상된다. 프로젝트 진행상 올해 매출 실적은 4Q24에 몰려 있다. 한편 연기된 이차전지 수주가 연말에 몰려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올해 연간 수주액은 연초 목표했던 1.5~6조원에서 크게 하회한 1조원 초반대로 예상된다.

목표가 35,000원으로 하향조정하나, 지나친 저평가. 투자의견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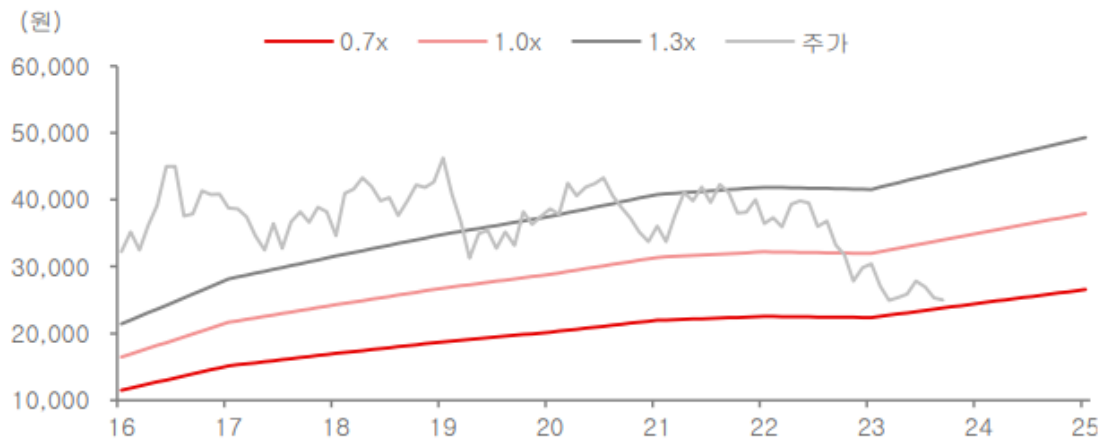
수주 전망치 하향조정에 따라 2024E, 2025E EPS를 각각 3%, 17% 하향조정했다. 목표주가를 35,000원 (P/B 1x 적용)으로 하향조정하나,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적 흐름에 비해 현재 주가는 지나친 저평가 상태로 판단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Fig. 1: 에스에프에이 연결재무제표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십억원)	1,684	1,881	2,307	2,472	2,767
영업이익	161	85	219	234	278
세전이익	152	59	204	244	305
순이익[지배]	77	40	118	128	160
EPS(원)	2,149	1,113	3,298	3,563	4,459
증감률(%)	-34.0	-48.2	196.3	8.0	25.1
PER(배)	16.9	27.3	7.6	7.0	5.6
PBR	1.1	1.0	0.7	0.7	0.6
EV/EBITDA	6.3	10.3	3.2	2.6	1.9
ROE(%)	7.0	3.8	10.9	10.7	12.1
배당수익률	2.4	0.9	1.2	1.2	1.2

자료: 에스에프에이,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Fig. 2: 에스에프에이 P/B 밴드 차트



자료: BNK투자증권



일진하이슬루스  
 신형 넥소를 기다리며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수소차용 연료탱크 생산업체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소차용 연료탱크 및 매연저감장치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주력인 수소 연료탱크는 수소차 내 수소를 저장하는 용기로서 저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압 설계가 필요하고, 충방전 시의 초저온/초고온을 견디며, 외부 충격에 터지지 않기 위한 내구성이 요구된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압력 기준으로 최고치 수준인 700 bar를 견딜 수 있는 탄소섬유 소재의 Type 4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4년 현대차의 투싼 FCEV를 시작으로 현재 넥소의 연료탱크를 독점 공급 중이다. 이외에도 상용차용 연료탱크도 생산한다. 현재 생산 공장은 전북 완주에 위치해 있고, 연간 생산능력은 5.2만개(완성차 기준 약 1.7만 대 전후)이다. 수소 승용차 기준 대당 ASP는 600만원 전후로 추정된다(대당 3개 공급).

넥소의 노후화로 매출 감소. 2024년은 수소 상용차용 매출이 만회 중

2018년 현대차 넥소가 출시되면서 2020년 매출액/영업이익이 1,135억원/151억원(영업이익률 13.3%)까지 증가했었다. 이 후 넥소의 노후화로 물량이 감소하면 2023년 매출액/영업이익은 787억원/-98억원(영업이익률 -12.4%)로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에도 305억원(-22%)/-33억원(적자확대)을 기록했다. 승용 수소용기가 89% (YoY) 감소한 24억원이었는데, 넥소의 생산이 450대로 87% (YoY) 감소한 영향이 크다. 반면, 상용 수소용기는 86% (YoY) 증가한 257억원이었는데, 수소 버스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2023년 700대에서 2024년 1,720대로 증가한 덕분이다(반면, 수소 승용차 지원대수는 2023년 16,000대에서 2024년 6,800대로 축소). 하반기에도 승용 부진 vs. 상용 만회의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4년 연간 매출액/영업이익은 727억원/-30억원(-8%/적지 (YoY))으로 예상된다.

내년 2분기 이후 신형 넥소의 생산대수가 중요

일진하이솔루스의 비용구조를 보면, 원재료비가 매출액 대비 약 50%~60%이고, 연간 고정성 비용이 360억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현재 매출액인 700억원대에서는 소폭 적자이고, 800억원 중반 이상일 경우 BEP로 예상된다. 현재 보조금 구조에는 상용 수소용기 및 기타 매출액이 600억원대로 예상되는 바 승용 수소용기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내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형 넥소 기준으로 7,500대 이상(신형 넥소향 ASP는 400만원 가정)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내년 2분기 이후 신형 넥소의 출시 시기 및 월간 생산대수가 실적/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이는 신형 넥소의 상품성과 함께 보조금 규모도 영향을 주는데, 참고로 보조금 규모가 가장 컸던 2022년에는 수소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수가 1.76만대, 그리고 당시 넥소의 생산대수는 1.06만대였다. 현재 시가총액은 7,535억원인데, 보유 순현금인 2,591억원과 7.2%의 낮은 부채비율 및 신형 넥소에 대한 기대감 등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프랑스의 플라스틱용 니엄사가 한국에 수소 연료탱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바 향후 경쟁구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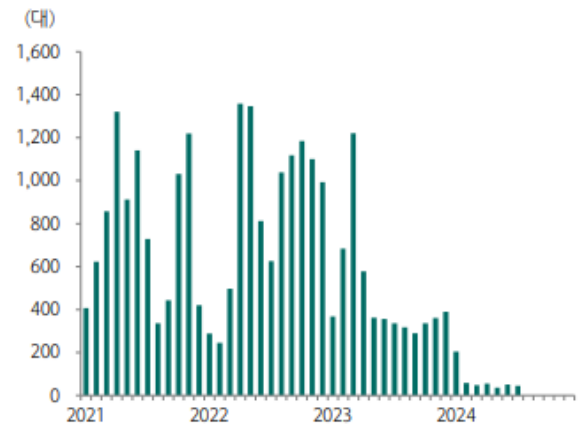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92	114	118	109
영업이익	13	15	10	3
세전이익	11	15	11	9
순이익	9	16	9	7
EPS	388	536	284	194
증감율	3,780.0	38.1	(47.0)	(31.7)
PER	0.0	0.0	191.9	153.9
PBR	0.0	0.0	6.4	3.4
EV/EBITDA	0.0	0.0	118.4	99.8
ROE	24.9	29.3	2.9	2.2
BPS	1,298	1,832	8,459	8,667
DPS	0	0	0	0

도표 2. 일진하이슬루스의 수소 연료탱크



자료: 일진하이슬루스, 하나증권

도표 3. 월별 넥쏘의 생산대수 추이



자료: 현대차, 하나증권



## 이마트

할인점 기준점 -3%, 영업이익 +28억원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2분기 실적은 체질 개선을 증명

2024년 2분기 이마트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였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 560억 원(전년동기대비 -3.1%), 영업손실 -346억 원(적자축소)을 달성하였다. 2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분기 할인점 기존점 성장률은 -3.0%로 업황 부진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1회성 비용을 고려할 경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8억 원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는 고강도 수익성 개선 작업 효과를 증명하는 것으로 펀더멘탈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둘째, 온라인 및 SCK사업부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SCK의 경우 신규점 출점 및 점포 수익성 효과로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호 실적을 달성하였고, 동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스닷컴과 G마켓도 적자폭을 각각 +14억 원, +37억 원 개선시키면서 사업부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3분기부터 실적 우려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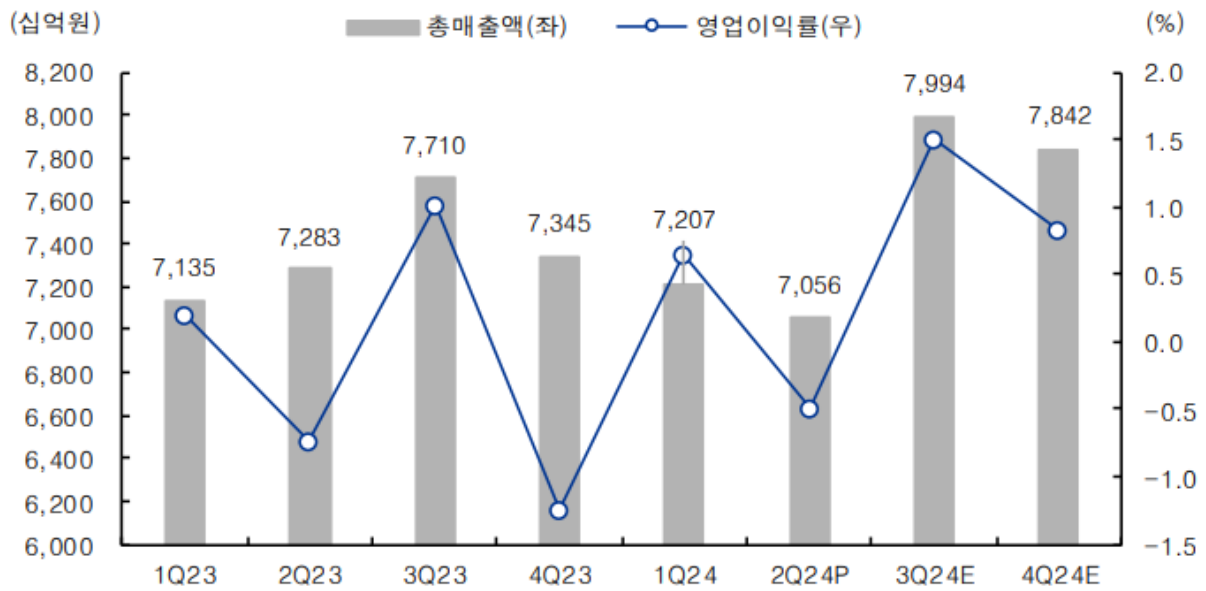
3분기부터 실적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1) 전체 계열사 수익성 개선 작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고, 2) 지난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신세계건설 그룹사 수주를 통해 영업 정상화가 기대되며, 3) 희망퇴직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와, 4) 비효율 점포 스크랩에 따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할인점은 이미 기초체력 증가를 증명하였고, 추가적인 고정비 완화 구간에(합병 + 인사비 절감) 진입한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만원 유지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29,332	29,472	30,099	31,331	32,132
영업이익	136	-47	198	258	284
세전이익	1,252	-212	-75	31	206
지배주주순이익	1,029	-89	-63	-22	183
EPS(원)	36,924	-3,196	-2,247	-774	6,568
증가율(%)	-34.5	-108.7	-29.7	-65.5	-948.5
영업이익률(%)	0.5	-0.2	0.7	0.8	0.9
순이익률(%)	3.4	-0.6	-0.4	-0.1	0.5
ROE(%)	9.6	-0.8	-0.5	-0.2	1.6
PER	2.7	-24.0	-27.1	-78.5	9.3
PBR	0.2	0.2	0.1	0.1	0.1
EV/EBITDA	8.2	8.6	6.1	5.7	6.0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이마트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민테크

전기차 배터리 불안하다면, 민테크를 주목

[출처]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 EIS 기술 기반 배터리 진단 전문 업체

동사는 EIS(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기술 기반의 배터리 검사 및 진단 솔루션 개발 전문 업체이다. 동사의 EIS 기술은 전류의 저항 수치를 계산해 몸안의 성분을 측정하는 체성분 분석과 같은 원리로, 전기 저항을 측정해 배터리의 상태를 분석한다. EIS 기반 배터리 진단은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 기술 대비 짧은 검사 시간(10분 이내)과 낮은 비용으로 사업성이 높다. 동사는 이를 통해 배터리 진단 시스템, 충방전 검사장비, 화성 공정 시스템 사업 부문을 영위 중이며, 1H24 매출 기준 비중은 각각 31%, 66%, 1%를 차지한다.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성일하이텍 등이 있다.

## 차세대 진단 시장 개화로 성장 본격화 국면

전기차 캐즘 우려에도 동사는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한다. 동사 EIS 기술은 진단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여줌에 따라, 셀 뿐 아니라 사용 중/사용 후 진단 시장까지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전 주기에서 수요가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충방전 검사 장비는 국제 표준 기반 시장 선점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며, 진단 시스템은 주요 고객사 향 수주 본격화를 통한 성장을 전망한다. 화성 공정 시스템은 공정 시간 단축 및 미세 불량 검출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향후 배터리 업체들의 신규 투자 진행에 따라 큰 폭의 성장을 전망한다. 이에 올해 실적은 매출액 270억원(YoY 54%) 및 적자 규모 축소를 전망하며, 25년 실적은 성장 본격화에 따른 턴어라운드를 전망한다.

## 높아지는 배터리 안전성 우려 속 동사 역할 확대 주목

최근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불량 배터리 검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기술 및 데이터를 보유한 동사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과제 참여기관으로도 선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경정비 및 중고차 매매 등 사용 중 전기차 배터리 진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사의 신속진단 시스템 사업의 성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

## 투자지표

(십억원, IFRS)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0.0	9.6	11.9	17.5
영업이익	0.0	1.2	-2.8	-6.6
EBITDA	0.0	1.4	-2.3	-6.0
세전이익	0.0	-7.1	-7.1	-8.5
순이익	0.0	-7.5	-7.1	-8.5
지배주주지분순이익	0.0	-7.5	-7.1	-8.5
EPS(원)		-492	-380	-427
증감률(%YoY)	NA	NA	적지	적지
PER(배)		0.0	0.0	0.0
PBR(배)		0.00	0.00	0.00
EV/EBITDA(배)				
영업이익률(%)	0.0	12.5	-23.5	-37.7
ROE(%)		111.2	71.3	-876.1
순차입금비율(%)		-11.9	-72.7	-10.6

자료: 키움증권

### 민테크 사업영역

#### 배터리 진단 시스템



빠른, 표준, 정밀 진단 알고리즘  
배터리 셀, 모듈, 팩 단위 검사

#### 충방전 검사장비



고정밀, 고효율, 고안정  
EIS 일체형 통합 S/W

#### 화성 공정 시스템



배터리 제조 화성 공정 내  
불량 검출 강화, 공정시간 단축

자료: 민테크, 키움증권



## SK네트웍스

주주환원 강화 흐름 긍정적

[출처] [하나증권 유재선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7,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SK네트웍스 목표주가 7,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SK렌터카 중단사업 분류로 기존 실적의 조정이 있었다. 자산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부 개편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SK렌터카 매각 결정으로 전사 이익규모는 기존대비 감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매각 대금이 유입되면 이자비용 절감으로 세전이익은 개선될 수 있다. 확보된 유동성은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024년 기준 PER 14.7배, PBR 0.5배다.

## 2Q24 영업이익 291억원(YoY +14.8%)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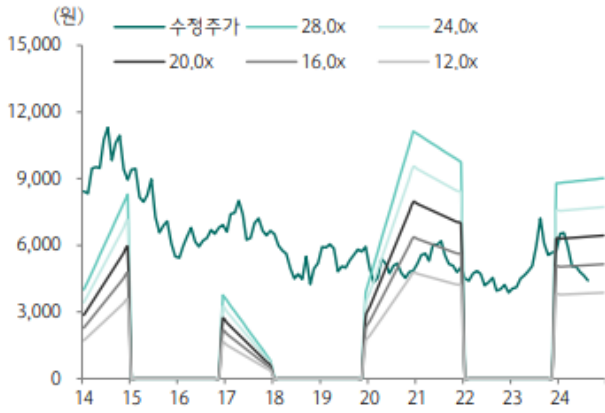
2분기 매출액은 1.7조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0.6% 증가했다. 4Q23부터 연결로 인식된 엔코아 매출 기여와 트레이딩의 성장이 정보통신 부문의 부진을 만회했다. 영업이익은 291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개선되었다. SK매직은 국내 렌탈 누적 계정 감소에도 ARPU 상승 및 비용 효율화로 이익률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정보통신/민트는 신규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가 없었던 영향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며 부진했으며 글로벌 중고폰 시장 부진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위커힐은 객실 점유율 및 단가 상승으로 호실적을 기록했으며 여행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대외 사업도 성장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트레이딩은 화학제품 단가 및 환율 상승에 외형이 개선된 반면 메탄올 시장 악화로 수익성이 둔화되었다. 스피드메이트는 부품 수출 사업의 수익성 중심 영업으로 외형이 감소했지만 정비 객단가 상승으로 마진은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는 중이다. 엔코아는 매출이 개선된 가운데 비용 이슈가 해소되면서 인수 이후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세전이익은 일부 자산 처분에 따른 일회성 이익 반영으로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었다.

중간배당 실시. 기말배당까지 감안하면 배당 매력 상승

매년 주주환원 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지난 3월 중간배당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 보통주 DPS는 100원으로 배당 총액은 205억원이다. 2024년 연간 영업실적을 감안하여 기말 정기 배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기말 DPS인 200원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면 연간 배당 수익률은 기존 눈높이 대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물론 렌터카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에 대한 특별배당 성격이 일부 존재하며 향후 투자 자원 마련 및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을 감안하면 올해 이후 연간 DPS 규모는 일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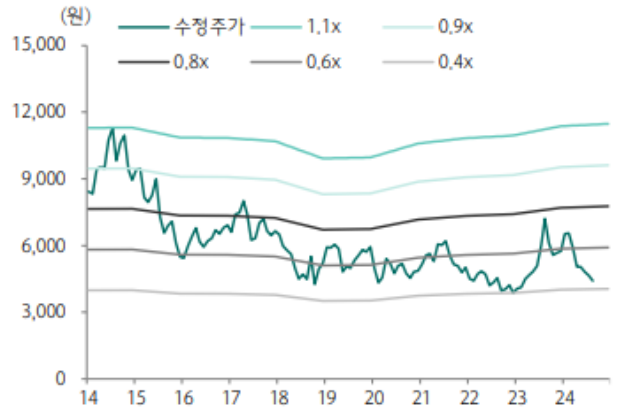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9,426.2	9,133.9	8,243.2	8,024.4
영업이익	177.6	237.3	151.2	130.4
세전이익	105.1	70.7	88.7	83.9
순이익	86.4	(0.7)	70.3	71.3
EPS	348	(3)	314	322
증감율	(12.34)	적전	흑전	2.55
PER	11.12(1,916.67)		14.65	14.29
PBR	0.40	0.58	0.45	0.45
EV/EBITDA	5.04	5.33	2.80	7.63
ROE	3.88	(0.03)	3.28	3.28
BPS	9,755	9,861	10,242	10,335
DPS	120	200	300	200

도표 2. SK네트웍스 12M Fwd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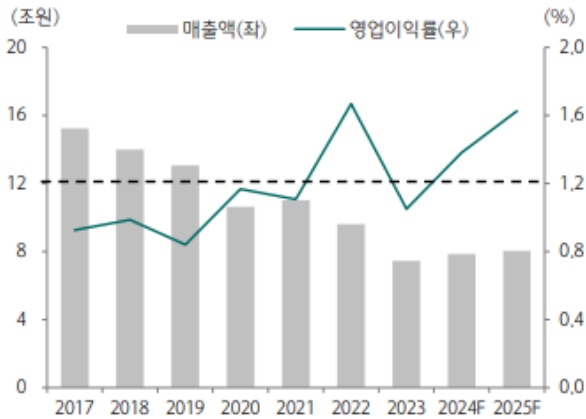
자료: SK네트웍스, 하나증권

도표 3. SK네트웍스 12M Fwd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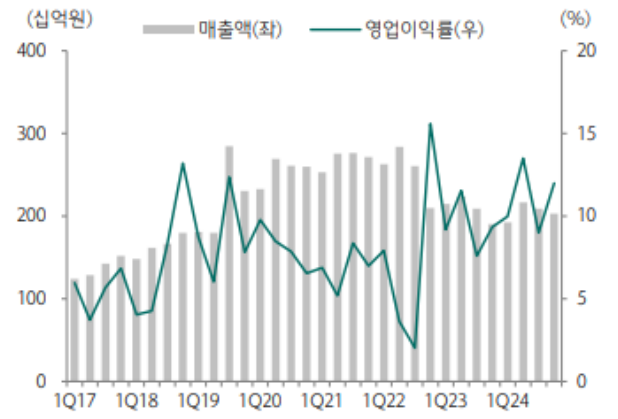
자료: SK네트웍스, 하나증권

도표 4.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SK네트웍스, 하나증권

도표 4. 분기별 SK매직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SK네트웍스, 하나증권





## 비에이치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밸류에이션 도달

[출처] NH투자증권 이규하 애널리스트

글로벌 동종업계 밸류에이션 하락 고려해 목표주가 하향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동종업계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고려해 동사 목표 PER을 기존 10배에서 9배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기존 35,000원에서 32,000원으로 하향. 하지만 고객사 스마트폰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기대되고 IT OLED, 폴더블 스마트폰 등 중장기 성장성 높아 투자의견 Buy 유지

시장에서는 하반기 출시될 북미업체의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우려가 아직 존재하나 당사는 교체주기와 AI 기대감이 맞물려 기대치 상회하는 판매량 달성할 것으로 전망. 또한 2025년에는 AI가 고도화되고 슬림모델 출시 등 폼팩터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판매 증가세 이어질 것

스마트폰 뿐 아니라 태블릿에 적용된 OLED도 향후 적용 모델 및 어플리케이션 확대에 동사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북미 고객사 폴더블 스마트폰도 빠르면 2026년 하반기 출시 가능성이 높아 향후 판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

중장기 성장성 고려 시 과도한 저평가 구간

견조한 본업과 무선충전 등 전장사업부 이익 턴어라운드에 힘입어 동사는 2025년 영업이익 1,516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할 전망. 3분기에도 고객사 출하량 확대 및 점유율 증가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 충족하는 실적 예상

최근 전반적인 IT 업종 주가 하락으로 동사 주가는 2025년 주당 순이익 기준 PER 5.7배로 코로나 저점 밸류에이션까지 하락한 상황. 하반기 신모델 판매 호조세 가능성 및 중장기 IT OLED, 폴더블 스마트폰 성장성 고려 시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1,592	1,862	2,050	2,173
증감률	-5.3	16.9	10.1	6.0
영업이익	84.8	133.5	151.6	162.9
증감률	-35.4	57.5	13.5	7.4
영업이익률	5.3	7.2	7.4	7.5
(지배지분)순이익	90.7	122.2	129.3	138.7
EPS	2,631	3,545	3,750	4,025
증감률	-37.4	34.7	5.8	7.3
PER	8.0	6.0	5.7	5.3
PBR	1.1	1.0	0.8	0.7
EV/EBITDA	5.8	3.1	2.3	1.6
ROE	15.1	17.5	15.9	14.7
부채비율	67.4	60.0	53.6	46.8
순차입금	54.6	-134.7	-244.9	-370.4

단위: 십억원, %, 원, 배





현대위아  
 변화는 시작, 주가에는 아직 미반영  
 [출처] NH투자증권 조수홍 애널리스트

하반기 신규사업 수주 기대, 사업구조 개편 순조롭게 진행 중

동사에 대한 Buy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80,000원 유지. 현재 주가는 24E/25F PER 6.7/4.9배, PBR 0.4배 미만으로 1) 기존사업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2)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 투자 매력 높을 것으로 판단

현재 열관리 사업 매출액 규모는 미미하지만, 냉각수 부품에서 통합열관리 부품으로 향후 수주범위 확대 기대. 기아 PBV가 출시되는 25년 하반기부터 열관리사업 매출 성장세 확대 예상. 전기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 지연 등이 나타나고 는 있지만, 연말(또는 내년 상반기)경 현대차그룹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승용 eM 플랫폼)에 대한 통합열관리부품 수주 가능성 기대. 수주 확정시 매출 기여는 27년이지만, Valuation 상승이 주가에 먼저 반영될 것으로 예상

하반기 양호한 실적 전망- 기계(방산)와 모빌리티부문 수익성 개선

2분기 모빌리티부문 수익성(영업이익률 2.3%)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음. 그러나, 생산전문 계열사 설립 과정에서의 일회성 비용 요인을 제거할 경우 하반기에는 3% 이상의 영업이익률 가능할 것으로 판단. 또한, 모빌리티솔루션(Robotics & Autonomous) 사업의 양호한 성장세도 긍정적. 하반기 자동차부품 사업에서는 HEV엔진(멕시코 공장) 신규 수주 가능성 기대

기계부문은 구조조정에 따른 공작기계부문 체질개선 효과와 방산부문 매출액 기여도 확대로 수익성 레벨업.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 성장세 지속될 것으로 판단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8,590	9,038	9,537	10,124
증감률	4.7	5.2	5.5	6.2
영업이익	229	288	357	397
증감률	8.1	25.8	23.9	11.2
영업이익률	2.7	3.2	3.7	3.9
(지배지분)순이익	91	203	276	312
EPS	3,363	7,481	10,143	11,473
증감률	39.8	122.4	35.6	13.1
PER	19.4	6.7	4.9	4.3
PBR	0.5	0.4	0.4	0.3
EV/EBITDA	4.8	3.5	2.8	2.3
ROE	2.7	5.9	7.5	7.9
부채비율	81.2	84.7	83.4	79.6
순차입금	343	234	98	-91

단위: 십억원, %, 원, 배

